

고난을 자처한 고학 시절과 이타적인 삶 그리고 철저한 신앙 수련

일곱째 천사의 신앙과 연단: 위기 극복과 신앙촌 정착

‘일곱째 천사’라 지칭되는 조희성님이 겪은 위기 극복 사례와 소사 신앙촌에서의 활동을 통해 조희성님의 강인한 정신력과 지도력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불굴의 용기와 침착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조희성님은 과거 신앙촌 콜라·사이다 음료 장사를 할 때 서울 가래처에서 수급하고 늘 밤늦게서야 소사 신앙촌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한번은 심야에 칼을 든 강도 세 명을 만났으나, 기계제조와 수많은 사전을 넘나들며 단련된 대답함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호통을 치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조희성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군 장교 시절 명동 미도와 양품부에서 장사하시는 사촌 이모님을 괴롭히던 건달 일행 15명과 홀로 맞서 싸운 일화는 조희성님의 뛰어난 격투 실력과 민첩성을 증명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맨주먹으로 단도를 든 무리를 격파한 조희성님의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은 현장에 출동한 헌병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어떤 난관도 정신만 차리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소사 신앙촌의 기강 확립과 정화 작업

1962년경, 신앙촌의 중심이 소사 제1신앙촌에서 덕소 제2신앙촌으로 이동하면서 남경진 소사 신앙촌은 술, 담배, 고성방가 등으로 기강이 문란해졌습니

다. 조희성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자발적으로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앙촌에 살고 있는 강패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전도한 뒤 새벽마다 청년들을 시켜 그 강패들을 깨워 오만제단 새벽예배에 참석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단호하게 훈계하며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을의 질서를 회복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당시 영모님(박태선 장로님)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움의 극복과 존경받는 재판관의 삶

초기에 신앙촌 사람들은 조희성님을 ‘마귀’라 부르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성님은 자신 안의 자존심과 αξιο를 버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이후 신앙촌 내의 복잡한 채무 관계나 싸움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자 중재자로서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조희성님은 모세처럼 재판관으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 조희성님은 20대 초반에 육법전서를 통달하셨다고 함)

예비군 창설과 탁월한 지도력

전국적으로 예비군이 창설될 무렵, 소사 신앙촌에서도 예비군을 창설해야 했는데 신앙촌 청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고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이 많아 이들을 통솔해 나갈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조종위가 아니면 통솔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 천부장과 한영순 권사 등 신앙촌 간부들이 찾아와서 예비군 창설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 사기꾼을 개과천선시키다

였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예비군 중대를 조직하여 거칠고 말쑥꾸러기들인 육백 명의 신앙촌 청년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맹훈련을 시켜 경 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비군 부대로 만들어 표창도 여러 번 받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연단과 사랑의 실천: 일곱째 천사의 고학(苦學)과 신앙적인 삶

‘일곱째 천사’라 불리는 조희성님의 청년 시절 고학 과정, 철저한 신앙 수련, 그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감화시킨 일화들을 통해 그의 희생정신과 인격적 완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고난을 자처한 고학 시절과 이타적인 삶

조희성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때까지 성냥, 찹쌀떡, 비누 등을 팔며 학

비를 스스로 마련한 고학생이었습니다. 비누 판매 중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발소 단골 납품권을 따내며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와중에도 고향 친구 세 명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담하여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고생하더라도 남을 돕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던 조희성님의 희생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조희성님은 군 장교 시절에도 무료 야학을 운영하여 소외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등 사회봉사에 앞장섰습니다.

엄격한 자기 절제와 철저한 신앙 수련

조희성님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있어 타협이 없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흐린 생각이 들면 자신을 ‘마귀’라 꾸짖으며 머리를 시멘트벽에 들이받는 극단적인 자기 징계를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거나 머리카

락이 빠져 대머리가 될 정도로 조희성님은 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낮잠을 자지 않고 여유가 생기면 남의 집 마당을 쓰는 등 근면함을 유지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힘든 일을 하여 병마를 이겨냈습니다.

한 번은 영모님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 항상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고지식하면서도 한편 순진한 면이 있었던고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땐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궁리 끝에 일곱째 천사는 잠자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꿈을 꾸면서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기도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으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확신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 시에는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잠잘 때 호흡하는 것마저 기도하는 것으로 쳐 주시고 맥박이 뛰는 것마저도 기도로 쳐 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 이래 일곱째 천사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마냥 불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미지근하게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이긴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기꾼을 개과천선시킨 한없는 포용력

조희성님은 타인을 순수하게 믿었기에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1년간 군 생활의 퇴직금을 몽땅 가로챈 사기꾼을 몇 년 후 우연히 만났을 때, 조희성님은 보복 대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쓴 것이나 내가 쓴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원망하지 않는 그의 고결한 인품에 감동한 사기꾼은 자신이 전과 5범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조희성님은 그가 다시 사기를 쳐서 가져온 돈을 거절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갚으라고 훈계했습니다. 결국 그 사기꾼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 번듯한 공장 사장이 되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악인이라도 참된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개과천선’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준 사례입니다.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평소에도 일곱째 천사는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면 그러한 일을 계속 고민하고 아까워서 속상해하지 말고 ‘얼마나 없으면 그와 같은 짓을 했겠느냐? 내가 쓴 것이 곧 내가 쓴 것이다’라고 생각을 돌려 먹고 잊어버린 뒤, 이제라도 다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노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새 각오로 돈을 버는 것이 현명하지, 돌아오지도 않을 것을 계속 속상해하고 싸우게 되면 자신의 피만 더욱 탁해지고 썩어서 놓고 병들게 되며, 결국 죽게 되어야 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젊을 때부터 갖추셨던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

이긴자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은 연단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동행의 체험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감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한번은 서울 신당동에 산다는 김모 씨의 집을 주소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택이 워낙 ㅼㅼㅼㅼ하게 들어선지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곳을 주소도 모르고 찾가란 끈기를 잡는 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만 믿고 늘 바라보이는 영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결과 그 집을 수월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 온 후 집을 아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느냐?”라고 하며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곱째 천사는 바라보이는 영모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터라 “당신이 이 집으로 올 때 몰래 뒤따라 와서는 집을 알아 두었지요.” 하면서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사니 한 치의 흠도 없는 온전한 생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 때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신앙촌에서의 연단과 전성회 사업의 활성화

소사 신앙촌 입주 후, 조희성님은 눈길이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신앙적 연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년전성회’

사업부 차장으로서 나중에 영모님의 사모님이 된 최옥순님과 매일 협업하면서도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시선과 마음을 정결히 유지했습니다. 또한, 군 장교 출신의 추진력으로 「버스 노선권(경인도로를 운행하는 여러 종류의 버스 중에 대한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그 회사의 버스만 신앙촌 식구들이 탈 수 있게 버스표를 신앙촌 영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함)」 협의를 통해 신앙촌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계장과 양돈 사업 등을 크게 일으키며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버스만 타게 하여 그와 같이 하게 되니까 당시 강남버스니 여러 종류의 버스회사 사장, 전무 등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기왕이면 대한버스만 태우지 말고 우리 버스도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촌 식구들이 대한버스만 타려니까 기다려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을 참에 다른 버스 전무, 사장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서 우리 버스도 타게 해달라고 하기에 강남버스 신앙촌 영업소를 해주고 또 다른 버스도 신신부탁하기에 못이기는 척하고 다른 버스도 일제히 다 타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버스표를 발행하는 권한으로 몇 할씩 떨어지는 수익이 상당금액에 달했는데, 그 수익금으로 조희성님이 주도하는 ‘청년전성회’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숨어서 일을 해결했지 드러내서 공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

조희성님은 변호사 사무장, 인쇄업, 복사기 운영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사회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도관을 비방하여 봉고시키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동기생을 통해 해당 서류를 파기함으로써 종단의 위기를 조용히 막아냈습니다. 조희성님은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업을 통한 연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조희성님은 기와 제조, 베이클라이트 공장, 고무판 공장 등 여러 사업을 경영하며 이긴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연단을 거쳤습니다.

대기업에 빌려준 프레스 기계를 돌려받고 시흥에 베이클라이트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당시 청계천 시장을 점령해야 사업에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청계천 도매상에 베이클라이트 물건을 조금씩 팔았는데 한 도매상에서는 절대 일곱째 천사의 물건을 안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그 점포 옆에다가 점포를 얻어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그 도매상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도매상이지만 그들도 이문을 불이고 팔아야 하는데 공장에서 직접 파는 가격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각 도매상 주인들은 서로 일곱째 천사의 물건을 달라며 일곱째 천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사기꾼을 만나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거나 대기업(기차표 고무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 60~70년대 「청계천 시장」

사진 출처: https://m.blog.naver.com/l_sfac/10146726905

지혜로 품질을 높여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공장을 가로채려던 악의적인 동업자에게 경고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등, 그와 대결하려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하며 보호하고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청운동에서의 치유 기적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열망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이런 저런 사업을 한 끝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자, 남대문 옆 영화빌딩 7층에 약 30평가량 되는 사무실을 차리고 공영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주로 상들리에라든지 라디오가 달린 까만 안경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였습니다.

한참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져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청와대 옆 청운동 임씨네 집에서 교인 삼십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일곱째 천사는 선전성 앞 은행이, 병어리, 소아마비, 장님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병을 고쳐줄 때에는 “누가 고쳐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고쳐주었던고로 소문이 나지 않게 은밀히 숨어서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누구한테 자랑만 하면 그 병이 도져 죽으니가 병이 낫다는 말을 누구한테든지 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병을 고쳤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청운동에서 치유기적과 기사이적을 많이 행할 때, 그곳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먼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천사를 은혜자로 알고 찾아와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성교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일곱째 천사가 행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면 그 일곱째 천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질병을 고쳐 전 국민에게 전도관의 진리를 전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연결해 줄 만한 주변 사람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으나, 이는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곱째 천사는 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통해 모진 연단을 겪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매진한 끝에 ‘해와 이긴자’를 찾아가는 신앙적 여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